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 2명 위촉

- 게임물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8월 12일(월)자로 서태건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과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한다. 이는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4. 8. 12.~2027. 8. 11.)이다. 위촉식은 8월 12일(월)에 열릴 예정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이며, 이번 임기 만료 위원 중에 김규철 위원장이 포함됨에 따라 신임 위원장은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통해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등 업무를 더욱 강화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위촉식(8. 12.) 현장 사진 추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명단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이영민 (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장동엽 (044-203-2442)

사진	성명	주요경력
	서태건	·(현)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본부장
	정의준	·(현)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 미시간주립대 M.I.N.D. Lab 연구원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